

- 본문 : 사사기 13장 1~7절
- 제목 :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함”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멸망으로 가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갖고 있다. 여호와를 섬기다가 범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되고, 그 징계와 같은 삶이 힘들고 고되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한 동안 다시 여호와를 섬기다가 또 죄 가운데 빠지는 정말 불행한 악순환의 사이클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사기에도 징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사라졌고, 평안이 계속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블레셋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것과 같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의 삶 속에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진 세상과 동화되어버린 삶의 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지나온 여름방학의 시간을 잠시 돌아보고 내 삶과 신앙생활을 먼저 점검해보자.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세상”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 갖는 딜레마는 무엇인가?
* “세상”의 3가지 의미
* 요일2:15, 약4:4, 요20:21, 고전5:9~10
2. “삶겨 죽는 개구리”와 같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3절 / 참고, 롬8:11)
3.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위험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4~5절 / 참고, 레11:45)
4.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삼손의 삶을 먼저 살펴보고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가? (참고, 삿13:24~25)

·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를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과 뒤섞이게 만드는 세상에서 돌아서야 한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룩함의 능력’을 위해 당신이 지금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고, 롬12:2, 딤후3:1~5)

· 말씀기도제목

1. “삶겨 죽는 개구리 증후군”처럼 평안을 가장하여 영적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벗하지 않는 “보냄 받은 소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2.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구별됨 속에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제8차 가을 특별새벽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회복을 권면할 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룩함”을 소유 하는 생명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